은혜를 받는 것보다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해

은혜 간직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구세주 조희성님

죽으면 영이 죽는 것이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영생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죠? 죽어서 하늘나라 천당에 간다고 하는데 죽으면 사람은 어디로 가요? 땅의 옥에 갇히죠? 지옥에 들어가죠?

기독교나 불교에서는 영혼이 뭔지 모르죠? 영혼이 마음이라는 것까지는 말들은 가끔 하는데 마음이 영혼이라면 마음작용은 피작용이죠? 마음작용이 피작용인고로 마음이 영이라면 피가 영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이 죽은 사람의 피가 되는 거죠? 죽은 사람 몸속에 있는 피는 썩어서 흙이 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 속의 피가 죽은 사람 피죠? 이 사람 말이 정확한 말씀이죠? 죽은 사람의 피는 살아 있는 죽은 사람의 자식 속에 있는 거죠?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피만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피도 있어요?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피도 있죠? 고조할아버지 할머니 피도 있죠? 5대조부 6대조부 조상 대대로의 피가 우리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있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속에 있는 거야, 무덤 속에 있는 거야? 무덤 속에는 아무것도 없죠?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어서 흙이 되었어요. 거기 가서 잠을 자도 잠이 잘 와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미아리 고개 넘어가면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었죠? 산봉우리마다 산소가 그냥 깨알처럼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집으로 덮여있는데 귀신은커녕 아무것도 안 나와요. 무덤자리의 터가 세다는 등 그런 소리는 다 개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잡념이 많은 사람은 죽은 사람의 피가 활동하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영이라는 건 죽은 사람의 피가 되는고로 살아있는 사람 속에 죽은 사람의 피가 있고, 여러분들의 피가 여러분들 조상의 피죠? 마음이 영이라면 죽은 사람의 영은 곧 살아있는 사람 속에 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몸속에 있는 거죠? 그런고로 마귀라는 건 어떤 게 마귀냐 하면 죽은 사람의 영이 마귀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잡념이 많은 사람은 왜 잡념이 많으냐 하면 죽은 사람의 피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잡념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잡념이 많아도 하나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착된 생활을 하면 잡념이 없어져. 잡념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착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마귀를 죽인다. 마귀를 죽이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마귀의 마음이 나올 수 없는 건 마귀가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그만 속아야 되죠? 마귀가 발동을 하면 피가 썩고,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가족을 생각한다든지 과거를 생각한다든지 하면 피가 썩을까, 안 썩을까? 그게 바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지독한 마귀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마귀가 가장 지독한 마귀인데 그거는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이 바로 가장 지독한 마귀인고로 의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배신하는 마음이야, 충성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을 배신하는 마음이죠? 그런고로 하나님의 목에다 칼을 꽂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건 무서운 죄다.

하나님께 맡겨야 죄를 안 짓는다

그런고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집착된 생활, 이제 그대로 몸과 마음과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인고로 하나님에게 전체를 맡기는 생활을 하기만 하면 항상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말을 하게 되니까 실수가 있을까? 없다.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고로 항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해야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게 하나님 자식이야, 마귀새끼야? 마귀새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할 일이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건 그게 하나님 식구야 마귀새끼야? 그건 마귀새끼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염려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노력과 모든 전체를 기울이는 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진액을 받죠?

은혜 간직하는 비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간직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죠? 마귀 소리하는 사람은 친구로 삼지 말고 멀리 하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을 접촉하면 몸이 무겁고, 어떤 사람을 접촉하면 골이 아프고, 어떤 사람을 접촉하면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런 체험이 있죠? 어떤 사람을 접촉하면 몸이 무겁거나 은혜 연결이 끊어지거나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은혜가 간직이 안 되어요. 그런 사람은 멀리 하세요.

그런고로 어떤 사람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더욱 더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죠? 더욱 더 은혜가 되는 사람, 항상 만나면 은혜 얘기나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항상 그 은혜가 간직이 되면서 은혜 쏟는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고 그랬죠?

전도를 하는데도 말할 수 없는 세력이 강하게 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전도할 때에 은혜 연결이 끊어지면서 몸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전도하면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어져서 지옥을 가게 되어 있어요. 씌어가지고. 아시겠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 말하자면 조상대대로 나쁜 짓만 하고, 조상대대로 무당신이 내리는 그러한 혈통의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한다고 전도가 됩디까?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조상 대대로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남에게 억울한 일만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의 후손은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완전 속한 사람이 있는 거죠? 마귀한테 속한 사람은 많지가 않고 극히 드문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은 도리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육감으로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에게서 오는 세력으로도 알 수 있죠? 그런고로 그런 사람은 전도를 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력이 안 오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전도를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은혜 간직이 되고, 은혜 간직이 되면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날로날로 하나님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구원을 얻고 마는 거죠? 그런고로 아무나 전도를 하지 말고, 선별해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단 나오면서 자유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죠? 아무렇게나 제단 나오면서도 자유율법을 안 지키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이간질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상대를 해주지 말아야 돼. 얼마동안 돌림뱅이를 치면 저절로 제단을 못 나오게 되죠? 그런 사람은 제단을 못 나오게 해야 되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새식구마다 돈 꿔달라고 해서 사기쳐요. 대개 돈 꿔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계획적으로 사기 치기 위해서 제단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실족시키면 지옥간다

형제를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매고 바다로 들어가라고 했죠?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가 굉장한 죄가 된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끼리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과 돈 거래 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본을 보여서 언젠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해야 되죠? 안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고로 우리 제단에서는 자유율법을 지켜야 우리 제단 식구지 자유율법을 못 지키면 승리제단 식구의 자격이 없죠? 자유율법이라는 것은 형제를 내 몸처럼 여기고, 형제의 죄가 내 죄요 형제의 잘못이 내 잘못이요 형제의 사정이 내 사정인고로 그런고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도와줘야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가 말할 수 없이 형편이 가난하고 굶주리는 가운데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것이 살인죄죠? 그게 아무 죄도 안 되는 줄 알지만 형제가 굶주리는 것을 보면서도 잠자리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 승리제단에서는 자유율법을 꼭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모여서 예배를 봐야 새로 오는 사람도 본을 보고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런 형제가 옆에 있으면 이 사람한테 말을 하라고 그랬던 거죠? 이 사람한테 말을 하면 그 어려운 사람을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자유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라는 것은 형제의 사정이 내 사정일 뿐만 아니라 이 몸과 마음과 생명이 하나님거죠? 하나님의 것인고로 하나님에게 몸과 마음과 생명을 맡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기면 내 생각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생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고로 이러한 자유율법이 하나님 되는 법이요 자유율법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요 영생을 얻는 법이 자유율법인고로 피가 썩지 않는 법이 자유율법인 거죠?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저절로 이 세상에서 사는 생활의욕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이 안 되고, 절망이 안 되고,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면서 항상 기뻐요. 항상 기쁜 마음, 항상 즐거운 마음이 있는고로 그런고로 병에 걸리려야 걸릴 수가 없고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몸이 되죠?*

1991년 8월 23일 말씀 중에서

파악 원리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현재의 나(자아의식)는 참나가 아닌 거짓 나이다

사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다가 비참하게 늙고 병들어 죽어 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고등종교에서 논하는 고차원적인 몇 가지 죄론까지도 고찰해 보았다. 이 몇 가지의 것을 간추려 정립해 보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자아의식이 죄의 본체라는 다소 어리둥절한 결과를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왜 나라는 자아의식이 주된 죄의 주범인지를 저 유명한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元曉大師)의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을 참조해 봄으로써 인간의 자아의식이 어떻게 죄에 물들어 타락해 가면서 잘못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을 한번 파악해 보자. 상당히 심오한 불교의 죄의 분석에 대하여 기자는 비교적 알기 쉽게 파악하도록 해 보겠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마음, 진여(眞如)의 마음, 일심(一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스스로 맑고 깨끗한 부처의 마음이 무명(無明, 無知)의 습기(習氣) 때문에 가려져 갖가지 좋지 않은 동요를 일으키게 된다. 여기서부터 마음이 악에 물들기 시작한다. 마음이 움직여 타락되어 가는 과정을 '생멸문(生滅門)이라고 원효는 표현한다. 이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삼세육추(三細六芻)라는 것이 있다. 생멸의 상(相)인 삼세육추는 사람의 생각이 타락의 길을 거쳐 가는 유전의 과정을 인과관계로 설명한 것인데, 이것은 3가지 미세한 죄와 6가지 거칠은 죄란 뜻으로, 삼세유추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삼세(三細)

첫째, 무명업상(無明業相): 사람의 마음이 날 때부터 이어받은 밝지 못한 맹목적인 의지의 힘(업보業報)으로서 생멸의 근본원인이 된다.

둘째, 능견상(能見相): 생멸의 근본원인, 즉 무명 때문에 나타나는 그릇된 주관이다.

셋째, 경계상(境界相): 주관과 동시에 나타나는 객관 사이에 세워지는 경계의 상이다.

*육추(六芻)

첫째, 지상(智相): 객관적인 대상인 경계에 대한 가지가지 분별이 생기는 모습이다.

둘째, 상속상(相續相): 분별하는 마음이 지속되어짐이다.

셋째, 집취상(執取相): 좋고 나쁨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판단 단계이다.

넷째, 계명자상(計名字相): 허황된 망상을 개념화시켜 실제 있는 양 착각하는 잘못된 마음가짐의 모습이다.

다섯째, 기업상(起業相): 악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이다.

여섯째, 업계고상(業繫苦相): 악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고통이 따르는 지경에 이름이다.

이와 같이 다소 어려운 한자로 정의하며 풀고 있지만, 인간의 죄에 타락과정을 단계별로 잘 분석하고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타고난 무명(무지無知)의 업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계속적인 자극과 충동에 의하여 인간의 죄는 세월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가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죄가 심화되어가는 강도가 점차 단계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것이 곧 인간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죄가 심화되어 가는 강도가 단계별로 두드러짐에 따라
인간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쳐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에 기록된 죄의 분석론과
승리제단의 죄론 대동소이해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의 근본

전호에서 설명한 승리제단에서 주장하는 죄론과 원효대사의 죄의 분석론 내용과 크게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경도 대동소이하게 본래 인간이 청정한 진여의 마음상태에서 마구니(죄)에 의해 무지에 상태로 떨어짐으로써 분리 분열의식을 갖게 되었고, 우주만물과 인간,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차별하여 미워하고 다투며 서로 죽이기까지 한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의 '자아의식'이 왜 죄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일견 강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나라는 의식이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만악(萬惡)의 악"이라는 대표적인 경구도 있다. 사람의 성품을 세밀히 살펴보면, 누구든지 자존심을 건드리면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욕설과 폭력을 서슴없이 행하는 악이 나온다. 이것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애와 자기 보호본능이 역기능적으로 비인간적 처사로 나타난다. 인간 사회는 자신이 살기 위해 이율배반적이게도 외부의 대상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는 악의 연결고리의 구조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을 보아 사람의 마음과 행위의 주체는 바로 각자 자신의 자아의식이 주인의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모든 인과(因果)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각자가 하나의 몸에 담겨 있는 정신, 그것의 주인으로 앉아 있는 자아의식의 지배로 말미암아 일체의 감정과 행위의 결과를 낳게 되고,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궁극에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더 나아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다. 대개 무지한 사람들은 나라는 의식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무심코 나라는 의식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그렇다면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좀더 나라는 의식이 구체적으로 어째서 죄의 본체가 되는지 몇 가지 속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옛 속담에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 욕심 따위의 비인간적인 감정이 누구에게나 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속담 중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라는 쓴웃음 짓게 하는 말도 있다. 어떠한 일로 잘못을 저질러 자신이 체벌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데에다 쌓인 감정을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도 있다. 속 뜻은 남에게 싫은 소리나 불편을 조금 끼쳤는데 그 여파로 여러 가지 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속담 속에 담긴 의미 속에서 죄악의 원흉이 나라는 자아의식임을 단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김주호 기자